

晉州姜氏大護軍公派譜卷之一 上編

南漢譜序

晉山之姜吾宗也自鼻祖元帥公以後代有冠冕名公鉅卿赫赫繼武爲東國大姓者千有餘祀支分派別兄弟之子爲堂從堂從之子若孫爲再從三從而後屬浸疏終歸於路人然顧其初則一也何忍昧昧不知其今之雲仍爲昔某公之支派而視之若路人哉嗚呼此譜之所以不可不作而其有關於追遠而惇叙者非淺鮮也宗人姜都事碩老甫專精致力考出世系次第編成一譜刊錄其子孫而宅相以下不與焉以同宗爲重故也其追遠之誠惇叙之誼實在於斯譜而爲吾宗之一大幸也蘇老泉族譜引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矣余亦曰觀斯譜者無足以感發其善端而無復有路人視之歎也況當衰替不振之日苟能因斯譜而上念祖先之遺烈而務自奮起焉下勵子孫之頽習而期以立揚焉芝蘭玉樹之寶滿於謝氏之庭高車駟馬之慶溢於于公之門使之轉今而回昔則抑可見斯譜之有助而尤不爲幸中之幸歟噫老者勸之少者勉之則茲無不難致也明矣諸君以余齒最長強請爲之弁辭不獲於是乎書

丁未清和之閏下浣不肖後孫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姜 瑜謹序

남한보서 해석

진산강씨는 우리종친이라 비조(시조) 원수공으로부터이 후대대로관면(冠冕) 觀과면류관즉벼슬)과 명공거경(名公鉅卿) 이름난재상과높은벼슬아치)으로서혁혁히빛나고 무(武)를계승하여 우리나라의 대성(大姓)이되어서천(千)을넘는지라 사지(祀支) 奉사자인종손과지손)분과는 형제아들은분별하여 당종이되고 당종의 아들에 손자같은면 재종삼종이되어 후손은 침소(浸疏) 浸疏를이러고갈라짐)하여 마침내 노인(路人) 路人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그시초를돌이켜보면 한가지니라 어찌매매히마

음을억제(忍)하고 그지금의 운잉(雲仍)운손즉 멀어진 자손과 인손 즉 원손(을 알지 못하고 옛날의 모
공(某公)어느분)의 지파가 되어서 이를타인같이 보라? 오호라! 이것이 족보를가히 작성하지 않음
수없는 까닭으로서 그관련이추원에있고 돈서(惇叙)돈독하게하여질서를세움)의천선(淺鮮)열고적
은것)이아니라 종인(문중사람)강도사 석로(碩老)가비로소 전정(專精)정신을한가지일에오로지
함)으로 치력(힘드림)하여 세계(세대의계통)(考案)를 고안해내서 차례로 편성하여 한보책을 간행
편록하였으니 그자손이며택상(宅相)외적의조카외손외생)이하 모두가 어찌관여하지아니하랴? 이
것이 동종에게 중한일(故연고)이되는 소이니라 그추원의 정성과 돈서의 정의가 진실로 이보책
에있고 오종의일대행사(幸事)가 되느니라 소노천족보에 인용하여말하기를「우리족보를보는 이는
효제의마음이유연(油然)구름이피어나듯이왕성히일어나는모양)히생긴다」고 하였느니라 나역시「이
족보를 보는 이는 족히써그선단(善端)실마리즉비롯함이 좋음)에 감발됨이없어도 다시노인시(路人
視타인)으로생각함)하는탄(歎)은있지 않음것이라」고 말하겠노라 하물며 쇠체(衰替)쇠하여폐함)
하고 부진한때를 당하더라도 진실로능히 이족보로인하여서 위로조선(祖先)의유열(遺烈)후세에남
긴공적)을 추념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힘쓰고 아래로 자손의 퇴습을 가다듬어서 세입양(立揚)을
기약할것이니라 지란(芝蘭)선인군자)과 옥수(玉樹)재능이뛰어난사람)의 보배가 사씨(謝氏)의뜰
에 가득하고 고거사마(高車駟馬)車蓋가높은수레와四頭馬車죽고키한사람)이라는수레)의경사가오우
..(於于!아아!)공의 가문에 넘침이라 사지문지(使之聞之)자기의 의사를 사람을 거쳐간접적으
로 남에게전함)이제를 돌이켜보고 옛날을 돌이켜 보면 또한 가히이족보의 도움이있음을 볼수있고

더욱이 다행한중에서도 다행이 되지 않으랴? 아아! 늙은이는 이를 권하고 젊은이는 이를 힘쓰면 이에
어려움을 이루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밝음이며! (총명한 이들이여!) 재군은 내연치(나이)가 최장
(가장 많음)하므로써 변사(弁辭)·책머리에 쓰는 말(를) 지어 강청하는 것이며 불확(不獲)·실심하지 않
음)하고 이에 수서(손수 씀)하노라

西紀一七二七年三월 하순 불초후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
찬관 강 유근서

晋州姜氏大護軍公派譜序

程叔子曰惇宗族厚風俗 須是明譜系立宗法 蘇老泉曰觀吾譜者 孝悌之心 油然而生 由此觀之 人家
譜牒之修 豈不有關於彝倫風化之攸及也 然而世遠道衰 文獻無徵則能推其源而辨其派 徵諸往而垂諸
後者 實難 此譜牒之不可不修也 我晋山之姜 自羅麗以降 名公碩德 磊落相望 爲東方巨閥 但譜
牒之修 始於南漢 其奠系之詳 族類之盛 粲然明備而厥後續修者 凡十餘次矣 然 枝葉漸蔓 派流
益廣 老者死而幼者壯 亦有嫁娶生子女者 親者至於疎 疎者至於忘矣 爲是之懼肆於昨昨高陽郡碧
蹄面大慈里龍步院歲薦時 僉曰際此時而我大護軍公派譜 不可不修 乃更議於商山 設役於大田 首尾
三載 功告訖 此莫非任員諸賢之勤勞 僉宗誠力之眞摯也 抑又有一說焉 顧今風潮震盪 倫教滅絕
不知宗族之爲重 譜牒之爲貴者 滔滔皆是 惟覽是譜者 當體吾先祖種德之厚而篤生孝敬之心 砥身飭
行聿追先規 遠而愈近 疎而愈親則此莫非吾宗之幸事 修譜之本意也 余以老衰 猥忝都任 略書所感
于中者如右云爾

歲癸丑臘至月上浣

後孫錫允謹序

진주강씨대호군공과보서 해석

정숙자가 말하되「종족은 돈목하며 풍속은 순후해야 하고 모름지기 보계를 옳게 밝혀서 종법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고 소노천은 말하되「우리보책을 보는이는 효제의 마음이 유연히 생긴다」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데 인가에 보첩을 닦음이 어찌 인륜이 뿔뿔하고 풍화가 아득히 멀리미침에 관련있지 않으랴? 그러나 세대가 멀어지고 도의가 쇠하여 문헌의 징빙이 없으면 능히 그 근원을 추구하며 그과를 분변하며 모든왕사(往事)를 징빙하고 모든 후손에게 수시(垂示)함이 실로 어려워서 이보첩을 불가 불뉘지 않을수 없는지라 우리 진주강씨는 신라 고려 이후명공 과석덕과 재상의 명망이 뇌락하여 동방의 거벌이 되었노라 다만 보첩의 닦음이 남한보로 비롯하여 그계서의 정함이 상세하고 일가들이 번성하고 찬연히 명비하여져서 그이후 계속수보함이 무릇 십여차라 그러나 지엽이 점점퍼지고 과류가 더욱 넓혀져서 늙은이는 죽고 어린이는 장성하여 또한 시집가고 장가들어 자녀를 낳는이가 있을것이며 어버이는 추함에 이르고 추한이는 노망에 이르라 이를위하여 조심(懼)하고 궁구(肆)하여 재작년 고양군 벽계면 대자리 용보원 세천시에 침중이말하되「이때를 즈음하여 우리 대호군 공과보를 불가불 수보하지않을수없다」고 하였고 이에 다시상산에서 의논하고 대전에서 설역하여 수미삼년만에 공을고하고 끝내게되니 이는 제현의 근로와침중의 성력의 진지라고 아니할수 없느니라 또한마디 할말이 있노라 현금을 돌아보건데 풍조가 진탕이고 윤리와 교육이 멸절되어 종족의 위중함과 보첩의 위키함을 알지못하는 자가다이에 도도(시대조류에

따라감)하게 되고 오직 보책을 보는 이만은 마땅히 몸에 우리 선조의 종덕이 후하고 돈독한 효경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몸을 닦고 행실을 닦아 선조의 법을 좇고 멀음은 더욱 가까와지고 성김은
더욱 가까와 질 것이니 이는 오종의 다행한일이 아닐 수 없고 수보의 본의가 되지 않으랴? 나는 노쇠
의 몸으로써 외침하기도 도임으로서 대략 소감을 적어서 중자(바른덕을 가진 자)에게 위와 같이 이
르노라

西紀一九七三年十一月 일

후손

석은

근서

序文(서문)

大抵(대저) 族譜(족보)라 함은 한 氏族(씨족)의 世系(세계)와 個個人(개개인)의 行蹟(행적)을 記
錄(기록)한 책인데 自古(자고)로 自己祖上(자기조상)들의 諱字(이름자)가 羅列登載(나열등재)된 所
重(소중)한 책이라 하여 舊藏(심장)해 놓고 있었지만 現代(현대)에 와서는 族譜(족보)를 책
상위에 펴놓고 門中(문중)의 한 歷史冊(역사책)이라는 觀念下(관념하)에 朝夕(조식)으로 熟讀(숙독)
子孫萬代(자손만대) 그 後裔(후예)들을 위하여 啓蒙指教養(계몽지도 교양)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過去(과거)의 族譜(족보)는 漢字(한자)도 古字(고자)를 文句(문키)도 難解(난해)의 熟語
(숙어)를 官廳(관청)은 別稱(별칭) 등으로 窮僻(궁벽)한 用語(용어)를 使用(사용)하여 自矜(자긍)하
는 듯한 風潮(풍조)가 있었음은 否認(부인)할 수 없는 事實(사실)이므로 今般(금반) 尙州譜(상주보)
에서는 憤然(분연)히 모든 困難(곤란)과 隘路(애로)를 克服(극복)하고 他門中(타문중)에 類例(유례)



가 없는 國漢文譜(국한문보)를 編纂刊行(편찬간행)하게 된 動機(동기)의 하나라고 하겠으며 또 하나는 西紀一九七〇년음十二月五日 各門中(각문중)에 通文(통문)한바와같이 大護軍公(대호군공)에 대한 爲先事業(위선사업)즉 位土購入(위토구입) 碑石改堅(비석개수)등 時急不可避(시급불가피)한 事業(사업)을 오직 譜牒刊行(보첩간행)의 利潤(이윤)으로써 解決(해결)하려는 點(점)에있다

元來淺學微力(원래천학미력)하고 譜學(보학)에 (별)로 造詣(조예)가 깊지 못한 사람의 族譜編纂(족보편찬)이란 참으로 벅차고 堪當(감당)하기 어려운事業(사업)임을 새삼切實(절실)히 느꼈으며 더욱 各門中(각문중)에서 文集(문집)과 類似(유사)히 編輯(편집)한 個個人(개개인)의 事蹟(사적)을 國漢文(국한문)으로 翻譯(번역)한다는 것은 지금와서 生覺(생각)하면 自身(자신)의 力量未及(역량미급)도 돌아보지 않은 所致(소치)라고나올까 如何(여하)튼 이제 譜牒發刊(보첩발간)을 보게되니 다시금 錯雜(착잡)한 感懷(감회)와 가지가지의 迂餘典折(우여곡절)이 眼前(안전)에 아물거리기만한다 干支(간지) 年代(연대)의 錯謬(착오) 仕宦·品階·夫人封爵(사환·품계·부인봉작)의 不均衡(불균형) 贈職(증직)및 壽職(수직)의 要件未備(요건미비)등의 是正(시정) 其他事情(기타사정)으로 相當(상당)히 時日(시일)의 浪費(낭비)를 招來(초래)한것은 事實(사실)이다 本是(본시)모든것을 適宜(적의)간이)하게 處理(처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自身(자신)의 性癖(성벽)탓도 또한 認定(인정)하는바이다

特(특)히 元帥公以下上系(원수공이하상계)에 대하여 西紀一六八五年 南漢譜創刊以來(남한보창간) 이래 何等(하등)의 研鑽(연찬)과 進展(진전)이 없음을 甚(심)히 遺憾(유감)으로여겨 各方面(각

방면)으로 相當(상당)히 考證資料蒐集(고증자료수집)에 努力(노력)을 傾注(경주)하였으나 別無所得
 (별무소득)이었고 다만 壬申譜(임신보)에 依據(의거)하여 上系年代(상계연대)와 配位關係(배위관계)
 를 登載(등재)하게 되었음을 千萬多幸(천만다행)으로 生覺(생각)하는바이다 그리고 過去(과거)어느
 族譜(족보)보다도 官職(관직)에 있어서 相當(상당)히 正確(정확)하게 補完(보완)된것은 오로지 李
 朝實錄叅照(이조실록참조)에 있었으며 本譜刊行(본보간행)을 위하여 總務族侄鎭九(총무족질복구)의
 周旋(주선)과 江陵族叔琮熙(강릉족숙종희) 安東族叔碩熙(안동족숙석희) 제씨의 賢勞之功(현로지공)과
 大邱族侄勲錫(대구족질훈석)의 한글校正(교정)등 同心協力(동심협력)하였음을 아울러 明記(명기)하
 는바이다 當初低廉(당초저렴)한 修單金(수단금)으로 僅僅(근근)히 譜所經費(보소경비)를 支辨運營
 (지변운영)하여왔으나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千萬意外(천만의외)에 紙價(지가)가 大暴騰(대폭등)
 (하여 本事業推進(본사업추진)에 一大支障(일대지장)을 招來(초래)하지 않을까하고 甚(심)히 憂慮
 (우려) 焦燥不安(초조불안)하던차 善山族弟信彥(선산족제신연)이가 掌財(장재)를 繼承(계승)그 職
 責(직책)을 完遂(완수)하여 有終(유종)의 美(미)를 거두게된것을 多幸(다행)히 여기며 欣快(흔쾌)
 히 生覺(생각)하는 바이라 偶然(우연)한 因緣(인연)으로 不肖(불초)는 族譜(족보)의 國漢文翻譯(국
 한문번역)을 擔當(담당)하게되어 古稀(고희)의 몸으로 心血(심혈)을 쏟아 編纂(편찬)을 하였으나 그
 內容(내용)을 精密(정밀)히 對照檢討(대조검토)할 餘裕(여유)조차 없이 脫稿(탈고)되어 未備補完
 (미비보완)한 點(점)이 許多(허다)하리라고 思料(사료)되오니 今後門中(금후문중) 有志碩學(유지석
 학)이 一層大成(일층대성)하여 주기바라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四年三月二十五日

後孫信昌謹序(후손신창근서)

跋

譜者所以普其族而溯其遠也竊惟我姜氏蓋有炎帝神農氏歷幾千百世而至于高句麗嬰陽王朝兵馬元帥公諱以式始顯東國破隋寇於臨榆關奠國祚於泰山是爲東方姜氏之鼻祖也博士公諱啓庸則我派中祖也其後屢世雖有晋州鄉藏譜及咸悅姜天錄譜等然其實創修譜即李朝 肅宗乙丑府使公諱碩老之南漢譜是也自乙丑至丁未凡一百六十二年之間其後修譜亦十數次而尚未免上系之訛傳良可歎也迺者族叔信昌氏慨然于斯以副都廳博考殷烈公及我御史公關西公各派舊譜壬申譜及麗史大東韻海西郭雜錄與夫申公采浩所著上古史等改編其別錄而騰諸譜首幸得以無忝於吾譜之系序有志者功竟成非實際語歟且伏念大護軍公先祖之位田累經兵火荒泯無餘香火艱難俱煎難狀去庚戌歲薦時議以譜事餘資定爲裸將之策而今幸修譜即尚州派譜也族兄錫允氏負重望而族叔信彥氏族從祐錫珍錫君任掌財之助不肖亦以魯莽之才猥負總務之責與族祖琮熙碩熙諸氏收單及編寫族兄錫洪氏以校正之任而病未能焉族兄勲錫氏國文校正族叔信珏氏協助者迄今三個星霜而概了至癸丑冬付諸畝畝而竣功凡四卷一帙也僉族之賢勞豈敢忘諸茲謹重違僉命不揆僭忘略叙顯末如右爾

甲寅二月 日

後孫 鎮九 拜手 謹跋

跋文 해석

보자는 그계례를 넓힌바로써 그근원이 멀어짐이라 오직 우리강씨는 다 열계 선농씨로부터 몇천 백세를 지냈으나 고구려 영양왕조에 이르러 병마원수 공회 이자식자는 처음 동국에 현명하시어 수나라 도독을 임유관에서 격파하여 나라에 도움이 태산같으니 이 동방강씨의 비조가 되심이요

박사공회 계자용자는 곧 우리파의 중조이시라 그후누대에 비록 진주향장보 및 함열 강천록 보등
 이있으나 그러나 그실상으로 창설한 보책은 곧 이조 속종을축년에 부사공회 석로의 남한보니
 라 을축년으로부터 정미년까지 一百六十二年 간이라 그후 수보함은 또한 十수차이나 오히려 상
 계의 와전함을 면하지 못함은 진실로 가히 탄식함이라 이에 족속 신창씨가 개연하여 부도청으로
 써 은열공 및 우리 어사공과 관서공외에 각과 구보 임신보 및 고려사 대동운해 서과잡록과 신평
 채호가 저술한 상고사로 더불어 상고하여 모든 보책머리에 등재함은 보책계서 무침함으로써 다행
 하기 으뜸이라 뜻이 있는자는 마침내 공을 이름이라 실제로 즈음한 말씀이 아니라 또 옳드리어
 내호군공 선조의 위전이 여러번 병화를 격어 황민화하여 남음이 없음을 생각하니 향화가 간난
 하여 전향을 갖추기 어려운 형상이라 지나간 一九七〇년(경술)세천시에 의논하기를 보사의 여재
 로써 과장(시사지냄)할 방책을 정하고 이제 다행히 수보함은 즉상주과보라 족형 석운씨는 그중망
 을 지고 족속 신언씨 족종 우석 진석군은 장재를 맡고 불초는 또 노망의 재로써 외람하기도 총무
 의 책임을 지고 족조 종희 석희제씨로 더불어 수단및 편찬과 사서하고 족형 석홍씨는 교정의 임
 무나 병으로써 미능(미필)하고 족형 훈석씨는 국문교정하고 족속 신각씨는 협조함으로서 삼개성
 상을 걸쳐 개료하고 계축년 겨울에 이르러 모든 각도에 새겨 마치니 모두 네권 한질이라 여러 종
 족의 현로하심을 어찌 감히 잊으리요 이 침명의 중위함을 삼가 참람한 망녕을 해아리지않고 전말
 에 위와같이 대략 서하노라

一九七四年二月 일

후손 복구 배수근발

郡守公諱謹派譜序

夫譜者 崇祖敬宗之意也 敦睦親叙之誼也 我姜自 元帥公之後 子孫繁衍 文武繼承 爲海東巨族也 噫 先祖御使公配位及 牧使公配位姓氏不傳 爲子孫之慟恨而偶得實記 此 吾宗之幸也 至於燕山朝 戊甲兩年 一門被禍 草木亦悲 日月無光矣 先祖郡守公墓位 所在密陽竹山 牧使公墓位 所在始興 蘭谷 不省不度 豈無百世之恨耶 歷三百五十餘載 徃在丁酉 不肖後孫 與四從兄道錫錫海三從兄錫烈諸氏 累次探索 不得奉審 庚子春 與進士公諱訢派族兄眞錫氏 再次探索 亦未詳故 門議發論 招魂設壇于良凡山 赤蛇秋 現夢於子孫 即被禍之日也 皆驚嘆曰 先祖英靈 永永不昧 如在此世也 門議更論 移壇于竹下公之壇上 四世壇所 繼在同原矣 不承香火 豈不慟感哉 庚申歲薦時 僉曰 不可不收 又况南海宗人正軾甫 負丙戌譜及文蹟 願爲同譜 考閱則無疑故 同時入譜 是幸也 設役於 店村 首尾二載 功告訖 是莫非任員諸賢之勞功也 宋有蘇老泉氏歐陽氏 二君子之言 可爲後世典儀 則 雖不生孝悌之心 各處諸族 議合誠力 吾宗之幸事 修譜之本意也 余以老齡 猥在都任 略叙其 概 如右云爾

一九八二年壬戌七月上泮

後孫 鍾九 謹序

해석

부보자는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를 공경하는 뜻 함이요 돈목을 친서함이 옳음이라 우리 강씨는 원수공의 후예로 자손이 번연하고 문무가 계승하니 해동에 거족이 됨이라 슬프다 선조 어사공 배위와 목사공 배위성씨를 전하지 못한은 자손의 통한이 됨이라 우연이 실기를 얻으니 이는 오종의

晉州姜氏郡守公諱訢派譜序

다행함이라 연산조에 이르러 무오 갑자 양년에 일문이 피화하니 초목도 슬퍼하고 일월도 빛이 없
 도다 선조 군수공 묘위는 밀양죽산에 있고 목사공 묘위는 시흥낙곡에 있으나 성묘 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함은 어찌 백세의 한이 없을까 삼백오십여 해를 지낸 뒤에 지난 정유년에 불초 후손은
 사종형 도석 석해 삼종형 석렬제씨와 같이 루차 탐색 하였으나 봉심을 얻지 못하고 경자년 봄
 에 진사공 회흔자와 족형 진석씨와 같이 재차 탐색하나 또 알지 못함으로서 문의가 발론되어 초
 혼하야 양범산에 설단한 뒤에 정사년 가을에 자손에게 현목하심은 곧 피화하신 날이라 다 놀래고
 탄식하신 말씀은 선조 영령은 영영불매 하시고 이세상에 계신듯갈도다 하고 문의를 다시 하여
 죽하공 단소위로 이단하니 사세단소는 같은 산에이어 있음이라 향화를 이르지 못하니 어찌 통감
 하지 않을까 경신년 세천때에 침탈 불가불수라 하고 또는 남해종인 정식보가 병술보와 문적을 지
 고와서 동보를 원하기로 고렬한바 의심이없음으로 동시에 입보하니 이는 다행함이라 점촌에서 설
 역한지 이년에 공 고향함은 임원 제현의께 노력한 공이있음이라 송나라에 소로천씨와 구양씨가
 있으니 두 군자의 말씀은 후세에 법이된 즉 누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하지 안하리요 각
 처제죽은 성역을 의함함은 오중에 다행한 사업이요 보책에 뜻을 닦는 바이라 나는 노령으로써 외
 람하게 도임에있어 약간 그개요를 우와같이서 하노라

후손 복구 근서

跋

唯我晋州姜氏大護軍公派譜 成未滿十年 又創派譜何也 先祖郡守公瑩域 在於密陽竹山 牧使公瑩域
 在於始興蘭谷 被於燕山戊甲之禍 又况累經兵燹 舊失其傳 爲子孫之慟恨矣 徃在丁酉 族祖鎭九道

錫錫海錫烈諸氏 再三探索 不得真蹟嗚呼 赫然之靈 默然無現 蒼天不佑 豈不慟感哉 後孫等 至誠
協力 設壇祭奠 焚香之策 微少故 設譜役以餘資 又得誠金 守護之方 門議可定矣 各處修單 雲
集成冊 自出誠金 是吾門之幸也 今此同譜之族 尊其祖 睦其族 人人家家 相互勸勉則 孝悌之心
油然而生矣 然而諱給後孫 單獨設壇 爲先事業 不應單合 恨何及之歟况 海隱公 牧使公之曾孫不
肖之先祖也 丙子胡亂 隱居南海 定於鄉約 士林推重焉 同譜丙戌 其後相隔 豈無怨恨 庚申臘月
訪問宗宅 合議同譜 是睦宗之誼也 略舉顛末 以付編末 後孫 正軾 謹跋

해서

오직 우리 진주강씨 대호군파보를 이룬지 미만十年에 또 파보를 창설함은 어찌함인고 선조군수
공묘역은 밀양죽산에있고 목사공묘역은 시흥난곡에 있음 연산무오갑자의화를 입고 또 여러번 병선
을 지내어 예전의 잃어버렸음을 전하니 자손의 통한이됨이라 지난 정유년에 죽조 복구 도석 석해
석열 제씨가 재삼 탐색하였으나 진적을 얻지못하였으니 슬프다 빛나신 영혼을 잠드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창천이 도우지 않으니 어찌 통감치 않겠는가 후손들이 지성으로 협력하여 설달하고 제
사를올리니 분향지책이 적은고로 보사를 하여남는 자금과 또 성금을 받아수호할 방침을 문중
론으로 정함이라 각처 수단이 온집성책하고 스스로 성금을 내니 이는 우리 문중의 다행한 일이다
지금 동보한 일가는 조상을 높이고 일가를 화목케하고 사람마다 집집마다 서로 힘써 권함은 즉 효
도하고 공경한마음이 스스로 나도록 함이라 회급자 후손은 단독으로 설단하고 위선사업에 단합을
불응하니 어찌한이 미칠까 하물며 해은공은 목사공의 증손이요 불초의 선조라 병자호란에 남해에

이거랑오랑이랑정랑수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한글이랑은

晋州姜氏郡守公諱謹派譜卷之全上編(진주강씨대호군공파보권지일상편자일세지팔세)

始祖 諱 以式 遠代孫 시 이 자 조희식 자

一世

啓庸

제자용자

博士公 (박사공)

西紀一二七四進士 (진사) 그후國子監試 (국자감시) 文科及第 (문과에 급제) 國子博士 (국자박사) 가되다一二七四년음
十월元帥 (원수) 金方慶 (김방경) 中國元 (중국원) 나라元帥 (원수)忻都 (훈도) 와 함께 日本「막부시대」를征伐 (정벌) 할때公이通信使 (통신사) 別路 (별로) 의書狀官 (서장관) 別路 (별로) 으로隨行 (수행) 하였으나이기지못했고行還後 (돌아온후) 晉山府院君 (진산부원군) 別路 (별로) 에封 (봉) 해졌음
配月城金氏 (배는월성김씨) 父侍中 (시중) 別路 (汝宇) (여우)

渭庸

위자용자

二世

引文

인자문자

內給事公 (내급사공) 高麗 (고려) 때國子監試 (국자감시) 文科 (문과) 에及第 (급제) 殿中省 (전중성) 內給事 (내급사) 가되다西紀一二八一년음五월元帥 (원수) 金方慶 (김방경) 과中國 (중국) 元나라元帥 (원수)忻都 (훈도) 등이再次 (재차) 日本遠征 (일본원정) 할때公은七年前父博士公 (부박사공) 을따라 日本 (일본) 에갔던關係 (관계) 로그行路 (길) 에精通 (정통) 하여通信使 (통신사) 書狀官 (서장관) 으로隨行 (수행) 日本 (일본) 의壱岐島 (이끼시마) 對馬島 (쓰시마) 를치고음六월에大宰府 (아자이후) 까지侵攻 (침공) 하였으나不幸 (불행) 히도음七월大暴風

三世

師瞻

사자첨자

御史公 (어사공) 上系諱師瞻監察御史公 (상계위사자첨자감찰어사공) 과諱字 (휘자) 가同一 (동일) 함
西紀一九三二년刊行 (간행) 壬申譜 (임신보) 에는師曠 (사자광자) 으로登載 (등재) 되어있음
一三三三년에密直府使監察御史 (밀직부사감찰어사) 을지내셨고卒後 (졸후) 에以孫君寶之貴 (손군보키) 이됨으로써 贈判內史令參理副使 (증직판내이정참이부사) 見乙丙兩譜 (을축병술보를보면) 羅州鄭氏譜云 (나주정씨보에는) 樞密副使 (추밀부사) 墓慶南陝川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 (묘는경남협천군율곡면갑산리룡덕산) 失傳 (실전) 一七七六년丙申 (병신)

四世

昌富

창자부자

昌貴

창자키자

晉原府院君 (진원부원군) 祖上 (조상) 의陰德 (음덕) 으로戶曹判圖司 (호조판도사) 正郎 (정랑) 西紀一三四六년判官 (판관) 을歷任 (역임) 하였으며門下侍中晉原府院君 (중대광문하시중진원부원군) 을 贈職 (증직) 을나리山里龍德山 (묘는경남협천군율곡면갑산리룡덕산) 壬坐 (남향약간동쪽) 配永嘉郡夫人安東權氏 (배는영가군부인안동권씨) 允保 (윤보) 祖檢校將軍 (조는금교장군) 金紫光祿大夫 (금자광록대부) 尚書左僕射 (상서좌복야) 子興 (자여) 曾祖尚書左僕射上將軍 (증조는상서좌복야상장군) 守洪 (수홍) 墓雙墳 (묘는쌍분) 後孫震馨 (후손진형) 述墓誌 (묘지를지으며) 매년음十月十日歲祭 (세제) 를을림

五世

君寶

군자보자

君寶

見下편六

관) 으로鷄林 (계림) 永川 (영천) 을歷任 (역임) 하였으며門下侍中晉原府院君 (중대광문하시중진원부원군) 을 贈職 (증직) 을나리山里龍德山 (묘는경남협천군율곡면갑산리룡덕산) 壬坐 (남향약간동쪽) 配永嘉郡夫人安東權氏 (배는영가군부인안동권씨) 允保 (윤보) 祖檢校將軍 (조는금교장군) 金紫光祿大夫 (금자광록대부) 尚書左僕射 (상서좌복야) 子興 (자여) 曾祖尚書左僕射上將軍 (증조는상서좌복야상장군) 守洪 (수홍) 墓雙墳 (묘는쌍분) 後孫震馨 (후손진형) 述墓誌 (묘지를지으며) 매년음十月十日歲祭 (세제) 를을림